

이번 호부터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의 '책과 사람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처음 편집자로 출판에 입문한 후 오랜 영업자 생활을 거친 한 소장은 출판 현실과 책문화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관점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과 사람 이야기'는 필자의 체험과 냉철한 객관을 함께 바탕 삼으며 국내 서점과 출판사들에 얽힌 이야기, 그 행간에 접철된 사람들의 행적과 뜻을 되새길 것입니다. 단순한 되새김질이라기 보단 책과 지성의 반경에서 우리 문화의 내일에 대해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편집자 주>

내 인생의 스승, 서점 사람들(1)

창비아동문고 1차 전성기의 실마리 준 교보문고 박인수 씨

글_ 한기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나는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창작과비평사(현 창비)에 1983년 8월 1일에 첫 출근을 했다. 그때 창비 직원은 모두 16명에 불과했다. 출근 첫 날 당시 김윤수 사장은 전 직원을 모아놓고 “지난달까지 월평균 수급은 2,700만 원에 불과했고 한 달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났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남은 5개월간은 월 평균 3,2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포함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절반이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1998년 7월 31일까지 만 15년간 일하게 된 창비에서의 생활은 이렇게 충격적인 '협박'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보통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면 설렘이 없지 않을 터인데 나는 그냥 앞이 노랗게 보일 뿐이었다. 내가 출근하기 전날과 그날의 차이는 나라는 직원이 한 사람 더 늘었다는 사실뿐이었고, 그날 김윤수 사장의 경고는 나를 향한 것에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영업과 관련된 기초 지식도 없었다. 출판경력이라야 반년 정도의 편집자 경험 밖에 없었다. 그것도 청주 주소지로 한 신생출판사 온누리의 편집자로서 말이다. 온누리의 첫 책은 《농민문학론》이었다. 내가 농민문학에 대한 평론을 모으

고 신경림 시인이 그 중에서 글을 골라 책으로 묶은 것이었다. 두 번째 책은 《신동엽-그의 삶과 문학》이었다. 이 또한 신동엽 시인에 대한 평론과 신 시인의 글을 모아 펴낸 것으로 문학평론가 구중서 선생이 편자였다.

두 책을 펴낼 때는 정말 정신없이 일했다. 공주사범대학을 다니다 4학년 때인 1980년 5월 정국에 데모를 주도한 일로 제적을 당하고 '포고령위반'으로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나는 직장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비록 신생출판사일망정 직장이 생기고 더구나 나의 인생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문학에 대한 책을 펴낼 수 있어서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그때 온누리는 열정만으로 시작한 출판사였다. 두 책에 실린 글은 대부분 재수룩한 글인데도 원고료마저 제대로 줄 수 없었다. 그러나 어찌랴?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나는 일일이 필자들에게 원고료 지체에 대한 사과전화를 했다. 그리고 두 권의 책 모두에 글이 실린 문학평론가 김종철 선생께 전화를 드렸다가 나는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 창비의 김 사장이 너를 보자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털썩 겁이 났다. 두 책에 실린 글의 상당수는 계간 <창작과비평>을 비롯한 창비 간행의 책에 실렸던 글이었다. 물론 필자들에게는 일일이 허락

을 받았지만 정작 창비에는 양해를 구하지 못했던 것이다.

고학생 시절에도 손에서 놓치 않았던 <창작과비평>

자칭 문학 소년이었던 나는 원래 <문학사상>이나 <현대문학> 같은 월간지를 주로 읽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통학버스 안에서 잡지를 읽고 있는 나를 보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서점에 가서 <창작과비평>을 한번 살펴보라고 권유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권유대로 <창작과비평>을 사본 이후 나는 단 한 호도 빼지 않고 그 잡지를 읽었다.

감옥에 끌려가던 1980년에도 내 손에는 전두환 정권이 강제 폐간시키기 직전에 출간됐던 <창작과비평> 1980년 여름호(통권 56호)가 쥐어져 있었다. 경찰서에 출두할 때부터 대전교도소에서 출감할 때까지 넉달 동안은 오로지 그 잡지만 읽고 또 읽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문예부장을 하면서 받은 공로상의 부상이 창비시선 1, 3번인 《농무》(신경림)와 《겨울날》(김광섭)이었다. 대학등록금을 대신 내 주신 은사 이해화 선생이 서점에서 직접 고르신 책들이었다. 나는 늘 학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벌어야 하는 어려운 처지였지만 그때 이후 창비시선만은 거의 구입해서 읽고 있었다.

그런 창비에서 나를 보자니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했다. 그래서 온누리의 김용항 사장과 상의를 한 뒤 나는 창비로 찾아갔다. 그때 창비의 사장은 대외담당인 김윤수 선생(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과 대내담당인 정해림(현 현대실학사 대표) 선생 두 분이였다. 내가 창비로 찾아갔을 때 두 분은 나의 우려와는 달리 주로 나의 신상에 대해 묻고 대담 창비에서 일해 볼 생각이 없냐는 말씀을 하셨다. 그때 내가 할 일은 특수영업이라고 했다.

나중에서야 안 일이지만 내가 두 책을 만들면서 만났던 분들이 나를 좋게 봐 주신 모양이었다. 그분들이 청주 인근의 산에 등산하러 오셨을 때 산도 같이 오르고 막걸리도 같이 마셨는데 내가 무척 성실하다고 보아준 것이었다. 그때 창비는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의 지형을 압수당하고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세금 추징을 당해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돌파구로 영업력 강화를 생각했던 것이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송건호, 강만길 외), 《우상과 이성》(리영희) 등을 펴낸 한길사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던 데 비해 창

비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한길사는 '운동권' 출신의 영업자가 있었지만 창비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특히 창비 정신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 창비의 문학서적을 읽어낼 수 있는 영업자가 필요했고, 그 사실을 안 분들이 나를 창비에 추천했던 것이다.

내가 창비를 찾아간 것은 그해 5월 중순쯤이었는데 나는 그때 학민사 김학민 사장의 권유로 《세 학교 이야기》에 실릴 <다락골의 바람>이란 글을 쓰고 있었다. 연세대 부설 재활원초등학교, 도시노동야학 까르딘 학교, 농촌야학 안면도 누동학원 등 세 학교를 르포 형식으로 정리한 책인데 앞의 두 쪽지는 성래운 교수(작고)와 김상봉(철학자) 선생이 각기 집필하셨다.

김학민 사장은 한길사에 근무하던 시절 편집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주로 지방출장을 오곤 했다. 그는 여관이 아닌 우리 자취방에서 자주 자곤 했다. 나는 그때 <사대신문>의 기사를 거쳐 편집장까지 지냈는데 신문은 늘 서울에 올라와 지금은 폐간된 덕수궁 옆의 신아일보사에서 제작했다. 광고는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을 펴낸 출판사에 찾아가 동판을 빌려다 신문에 실었고 광고비는 대부분 책으로 받았다. 김학민 사장은 그때부터 나를 잘 알았고 내가 안면도 누동학원에 근무한 경험을 얘기했더니 글로 써보라고 진작부터 권해왔었다. 아마도 창비에의 추천은 김 사장의 강권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그 글을 끝내야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출근하겠다고 창비

에 연락을 했는데 글 작업이 조금 늦어져 한 달 늦게 출근하게 되었다. 글을 쓰면서 나는 마포 동도고등학교 앞에 있던 학민사에 자주 들러 '영업수업'을 받곤 했다. 영업수업은 공덕동 굴다리 옆의 최대포 집에서 자주 이뤄지곤 했다. (최대포 집은 나중에 연구소의 첫 직원이자 동업자이다시피 한 출판칼럼니스트 한미화를 만나 영입작업을 했던 곳이라 무척 감회가 깊은 곳이기도 하다.)

판금서적 <신동업전집> 끼워팔기의 사연

창비로 출근해서 처음 45일 동안은 창고에서 살았다. 창비 창고는 정리가 되지 않아 창고에서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면 책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었다. 나는 가장 먼저 창고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보니 반쯤된 책의 밑에는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이상 리영희),



《국토》(조태일), 《북치는 앉은뱅이》(양성우), 《땅의 연가》(문병란), 《타는 목마름으로》《순이 삼촌》(현기영), 《신동엽 전집》 등의 판매금지 서적이 잔뜩 쌓여 있었다.

특히 《신동엽전집》은 감회가 깊었다. 공주사대에 다닐 때 창비의 영업사원에게 검게 양장 제본된 《창작과비평》 영인본의 구입자를 수십 명 소개해준 ‘공로’로 판금서적이었던 그 책을 공짜로 받고 나서는 무척 감개무량했었다. 나는 우울할 때마다 그 책에 수록된 장편시 《금강》에 나오는 곰나루로 가서 아사달 아사녀에게 제사지낸다는 핑계로 강소주를 마시며 마음을 달래곤 했다. 그러던 나였으니 3학년(1979년) 때 맞이한 신동엽 시인의 10주기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나는 대학동기 박경이와 함께 《신동엽전집》을 ‘불법복제’했다. 복사기가 없던 시절이니 필경을 해서 프린트를 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55부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10주기 때 부여 동남리 금강 기슭에 읽는 시비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러나 10주기인 4월 7일에 시비 앞에 나타난 사람은 나를 포함해 달랑 세 사람뿐이었다. 우리 일행이 시비 주변을 청소하고 소주 한 병으로 제사를 지내고 시비 앞을 떠나려 할 때 갑자기 택시가 서더니 하근찬, 박용숙, 현재훈 등 시인의 문인 친구들이 나타났다. 우리의 모양새를 보더니 하근찬 선생이 말없이 사라졌다가 술과 안주를 한 박스나 사 오시는 바람에 우리는 그날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맘껏 술을 마시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참고 정리를 하는 와중에 창비 영업부의 한 직원으로부터 엉뚱한 무용담을 들었다. 한 학생이 일주일 내내 찾아와 《신동엽 전집》 한 권만 달라고 사정했지만 결국 팔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한 가지 일을 모의하기 시작했다. 추석 연휴를 기해 그 판금서적들을 대학가 인문사회과 학서점에 푸는 것이었다. 그 시절만 해도 경찰이 눈을 부라리고 판금서적 단속을 하던 때라 이 일은 사실 대단한 모험이었다.

책의 정가도 문제였다. 오래 전에 찍은 것이라 정가가 터무니없이 낮았다. 그래서 수를 썼다. 《북미 최후의 석기인 이쉬》(테오도라 크로버), 《나의 옥중기》(김광섭) 같이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여있던 책을 끼워서 정가를 올린 다음 현금으로 서점에 넘긴 것이다. 그러나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다. 당시에 권력은 그런 일을 ‘범죄’로 취급했기에 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비밀리에 처리하는 요구마저 달갑게 수용했다.

문화생산자이자 스승이었던 서점 사람들

덕분에 창비의 재정애 조금 도움이 되었지만 그래도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그때 나에게 결정적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교보문고 매장 책임자였던 곽인수 과장이었다. 그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주었다. 하나는 〈창작과비평〉과월호를 판매하자는 것이었다. 그때 과월호는 2.5톤 화물차 7대 분량이 파주 금촌의 정해림 사장 시골집 창고에 쌓여있었다. 쥐의 똥

오줌 냄새가 잔뜩 나는 그 책들을 3일마다 봉고차로 한 차씩 날라 다 교보문고에서 팔았다. 결국 구색이 맞지 않은 한 차 분량 정도가 남았는데 그 책들은 창고 옥상에 쌓아놓았다가 비를 맞아 버리고 말았다.

다른 하나는 창비아동문고에 속해 있던 ‘한국전래동화’ 시리즈(당시 10권)를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만들어 풀어보라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즈음에는 책이 선물용으로 많이 팔려나갔다. 그래서 3,000질을 제작하기로 했다. 전래동화만으로는 아쉬워 한국창작동화와 세계민화도 12권씩 골라 1,000질을 따로 제작했다. 세트라야 비닐 케이스를 만들어 책을 담는 것에 불과했다. 당시 제작 담당자는 지금은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균동이였다. 그의 느긋한 성격과 나의 불같은 성격이 부딪혀 옥상에서 먹살잡이를 할 뻔 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뻔했으나 결국 겨우 크리스마스 전에 서점에 책을 풀 수 있었다. 비닐케이스 제작비는 자기가 내겠다던 곽 과장은 ‘한국전래동화’ 300질과 다른 시리즈 100질을 주문했는데 전래동화는 다 팔고 추가주문까지 했다.

그때 케이스제작비는 110만 원이었고 책 한 권의 정가는 1,500원이었다. 책을 보내놓고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지방출장을 갔는데 웬만한 서점에서는 그 책들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이미 다 팔렸던 것이다. 이것이 창비아동문고의 1차 전성기를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때 이후 나는 곽인수 씨를 늘 ‘사부’로 부르곤 한다. 이렇게 수많은 책들이 서점 사람들의 남다른 애정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고 창비와 나는 성장을 구가했다.

그런데 창비와 나는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때 나를 도왔던 서점 사람들은 지금 모두 ‘죽어가고’ 있다. 가끔 그때 사람들을 생각하면 역장이 무너지곤 한다. 강의 때나 술자리에서 그들과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곤 한다. 그들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었다. 문화의 공동생산자였으며 늘 내 인생의 스승이었다. 그들이 없었으면 나도, 그리고 이 나라의 책문화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무너지면서 이 땅의 책문화도 함께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들과 격정적으로 지냈던 나의 지난 시절을 되짚어봄으로써 진정한 책문화의 의미를 새겨보려 한다. **한기호**